

“수출, 주력·신흥시장 고른 성장… 4분기도 플러스 기대”

산업부, ‘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 9월까지 9대 주요지역 중 7개 지역 ↑ 반도체·IT 중심 수출 증가 지속 EU, 선박·바이오헬스 품목 호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9월까지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수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EU(유럽연합), CIS(독립국가연합)를 제외한 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7개 지

역에서 증가했다. 대중국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달러, +33%)를 포함한 IT품목 (447억달러, +28%) 수출과 석유화학(129억달러, +2%)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달러

를 기록했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달러, +20%), 일반기계(115억달러, +17%)와 반도체(73억달러, +147%), 컴퓨터(36억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달러(+14.0%)를 기록했다.

대아세안수출(846억달러, +6.6%)도 반도체(200억달러, +25%) 등 IT 품목(319억달러, +17%)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124억달러, +10%)·석유화학(50억달러, +2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220억달러, +17%), 중동(146억달러, +3%), 인도(141억달러,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21억달러, +

3%)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다만,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돼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선박(1~9월 56억달러, +98%), 바이오헬스(36억달러, +37%)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우데이, 1++등급도 저렴하게 만나요”

농식품부, 한우 20~30% 할인 공급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1등급 한우를 전년 대비 20~30% 싼값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해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마련했다. 오는 11월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열리는 이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11.1 이른바 ‘한우데이’는 소(牛) 자에 1(-)이 세 개 들어가는 점과 한우의 맛이 최고라는 의미의 1이 겹쳐 생겨났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 국거리류 등이다. 판매한다. 특히, 농협 계열 온라인몰(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7460원/100g, 양지는 3550원/100g, 그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는 2670원/100g 이하로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3년 10월 하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해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다.

행사 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세부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도 실시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008년 첫 시작된 이후 올해 17회째를 맞은 한우 먹는 날은 생산자단체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우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함께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개최한다. /뉴시스

“소비자들과는 한우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합리적 가격의 한우를 많이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정위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시 계약기간 재설정 의무화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6개 업종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급업자의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무원 이어 교원노조도 유급 활동 가능” 기업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 강화 추진

경사노위,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근면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약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

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립 및 국공립대 간의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 및 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후 김 장관은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환경부, EU CBAM 대응 설명회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

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도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과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해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환경부 수소 운반트럭 시범사업

환경부는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서 국내 최초로 현장에 투입될 수소차량운반트럭(카트랜스포터)의 인도식을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소 차량운반트럭은 현대차가 지난 1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제작에 착수해 이달 인증을 마쳤다. 최대 6대의 차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고, 동급 디젤 차량 대비 우수한 동력성을 지녔으며, 1회 충전 시 380km 주행이 가능하다. 수소차량운반트럭 시범사업 주관사로 참여하는 현대글로벌비스는 인수받은 차량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평택항 간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수송용 차량 운반 용도로 운용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